

黑字轉換以後 韓國貿易構造는 變化하고 있는가

姜 哲 圭*

＜目 次＞

- I. 赤字下の 後進的 加工貿易構造
- II. 黒字下の 貿易構造
- III. 主要 業種別 工程分業推移
- IV. 加工貿易後進經濟의 問題點

I. 赤字下の 後進的 加工貿易構造

국민총생산규모가 1988년에 1,700억달러 수준인 데 비하여 총무역액이 1,100억달러를 상회하는 韓國經濟의 貿易構造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중요하다. 한국의 무역구조가 加工組立貿易構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973~85년간, 즉 赤字時代 한국무역구조의 특성을 후진적 가공무역구조로 보고 이러한 경제를 加工貿易後進經濟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加工貿易後進經濟란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 등 생산요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조립 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자본순환이 지배적인 경제이다.¹⁾

이러한 가공무역후진경제는 일정한 歷史的 條件下에서 성립하게 된다.²⁾ 첫째, 자본재, 고급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내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둘째, 외국의 자본재, 기술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선진국자본이 일정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고 해외로, 특히 후진국으로 자본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1960~70

* 서울市立大學校 貿易學科

1) 姜哲圭・張錫仁(1987,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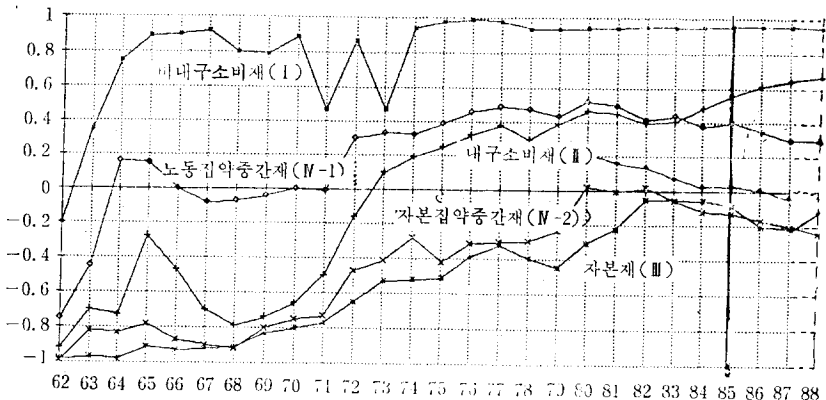
2) 姜哲圭・張錫仁(1987, p. 41).

년대에 실제로 본격화된다. 세째, 조립가공을 담당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네째, 조립가공상품의 해외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원리금상환을 위한 외환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경제의 자본순환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 1970년대초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 직전인 1985년까지 전형적인 加工貿易後進構造下에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經濟的 標識가 그때까지 지속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³⁾ 즉 i) 수출의 높은 성장기여율, ii)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특화와 소비재의 수출특화, iii) 특정한 자본재, 중간재의 수출국과의 견고한 공정간분업 형성, iv) 그 결과로서 무역이익의 자본수출국으로의 누출 등이 지속되었다(<表 1> 참조).

본고의 관심은 적자하의 이러한 貿易構造特性이 국제수지흑자전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혹은 새로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85년 이후 1988년까지 무역구조를 위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表 1> 用途別 對世界貿易特化指數 變化推移



註: 1) 貿易特化指數(輸出-輸入/輸出+輸入)가 플러스이면 輸出特化, 마이너스이면 輸入特化를 나타내고 “+1”이면 完全輸出特化를, “-1”이면 完全輸入特化를 나타낸다. 이指數가 0인 경우는 輸出과 輸入이 均衡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黑字下의 貿易構造

지난 1985년 이후 1988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3) 姜哲圭·張錫仁(1987, pp. 42-43.)

1. 輸出의 成長寄與率

지난 1960~85년간 연평균 40%의 높은 GNP성장기여도를 나타냈던 수출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1986~88년에도 여전히 높은 GNP성장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88년간 연평균 35.8%의 성장기여도를 나타내어 과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70년대의 5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80년대 전반의 기여율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가공무역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제 1 조건을 충족시킨다.

<表 2> 輸出의 成長寄與度

	GNP성장율 (A)	수출증가율 (실질)	수출의 성장기여도 (B)	수출의 성장기여도 (B/A)
1960~70	8.0	31.3	2.4	30
1971~80	8.1	21.9	4.5	55
1981~85	7.5	9.8	2.6	35
1986~88	13.6	16.4	4.5	36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갑자기 급증한 것과 국제수지의 흑자전환과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 점은 또한 1986~88년의 黑字轉換의 중요한 요인이 국내요인보다도 油價引下, 달러화 약세, 국제금리하락 등 海外要因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당시 국내경제여건은 賃金, 內需 등에서 수출을 크게 확대시킬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988년 2/4분기 이후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의 성장기여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것은 1987년 이후 근대적 노사관계의 정립과정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요인에 의하여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2. 商品用途別 貿易構造

加工貿易後進經濟의 제 2 표지인 자본재, 중간재의 수입특화와 소비재의 수출특화현상은 1986년 경상수지 흑자전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출입공산품을 비내구소비재(I), 내구소비재(II), 자본재(III), 중간재(IV)로 그리고 중간재를 다시 노동집약중간재(IV-1)와 자본집약중간재(IV-2)로 구분하여⁴⁾ Grubel and Lloyd (1975)의 貿易特化指數(E_{ij})를 계산했다. 무역특화지수의 값은

4)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세자리숫자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E_{ij} \in [-1, +1]$ 로서 만약 $E_{ij} \in (0, 1]$ 이면 輸出特化를, $E_{ij} \in [-1, 0)$ 이면 輸入特化를 나타낸다. 특히 E_{ij} 의 값이 +1이면 완전수출특화, -1이면 완전수입특화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E_{ij}=0$ 이면 수출입액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⁵⁾

1980~88년간의 상품용도별 무역특화지수를 보여주는 <表 3>에 의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1987년까지 소비재, 특히 내구소비재의 수출특화가 더욱 강화된 반면 자본재, 중간재의 경우는 수입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구소비재의 수출특화지수는 1985년 0.56에서 1986년과 1987년, 1988년에 각각 0.61과 0.64, 0.69로 상승되었으며 자본재의 경우는 1985년에 -0.09에서 1986년에 -0.20으로 1987년에는 다시 -0.21로 계속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1988년에는 -0.14로 다소 수입특화도가 낮아지고 있다. 1980년에 0.20까지 수출특화를 나타냈던 중간재는 그 후 줄곧 감소하여 1985년에 0.07, 1986년에 0.03으로 낮아졌고 1987년에는 드디어 수입특화로 전환되었고 88년에는 그것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중간재의 무역특화지수에서 주목되는 것은 1985년에 0.40의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던 노동집약중간재의 수출특화가 1988년에 0.30으로 낮아졌고 수입특화를 보여온 자본집약중간재의 경우도 1985년의 -0.13에서 1988년의 -0.22로 수입특화의 정도가 강화되었다. <表 3>을 통하여 우리는 국제수지 흑자전환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後進의 加工貿易性은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특화 또는 그러한 경향과 소비재의 수출특화현상을 우리나라 2대 무역국인 美國과 日本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국제수지 적자였던 1985년까지는 姜哲圭・張錫仁(1987)이 분석하고 있듯이 자본재와 중간재의 대일수입특화와 소비재의 대미수출특화로 특징지어졌다. 즉 일본으로부터 기기와 설비, 중간

<表 3> 用途別 貿易特化指數 推移

	무역량구성비 (87)	1980	1985	1986	1987	1988
I	14.10	0.9380	0.9569	0.9574	0.9572	0.9497
II	17.77	0.4652	0.5579	0.6130	0.6447	0.6914
III	24.11	-0.3076	-0.0876	-0.2040	-0.2129	-0.1358
IV	24.13	0.2024	0.0701	0.0263	-0.0189	-0.0436
IV-1	(8.99)	0.5213	0.4000	0.3453	0.2945	0.2986
IV-2	(15.14)	0.0193	-0.1326	-0.1709	-0.2050	-0.2201

註: 1) I. 비내구소비재 II. 내구소비재 III. 자본재 IV. 중간재 IV-1. 노동집약중간재 IV-2. 자본집약중간재

5) $E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단, X_{ij} , M_{ij} 는 각각 i 상품의 j 국으로의 수출, 수입을 나타내며 E_{ij} 는 무역특화지수임.

〈表 4〉對日本 商品用途別 貿易特化指數 推移

	무역량구성비 (87)	1980	1985	1986	1987	1988
I	10.96	0.7452	0.8138	0.8610	0.9024	0.9203
II	12.23	-0.4785	-0.4235	-0.4235	-0.3498	-0.1328
III	34.20	-0.7542	-0.6485	-0.8140	-0.7347	-0.6754
IV	29.65	-0.3975	-0.4341	-0.4573	-0.3845	-0.2623
IV-1	(7.52)	-0.0758	-0.2927	-0.3693	-0.3260	-0.1566
IV-2	(22.12)	-0.5384	-0.4913	-0.4893	-0.4045	-0.2934

註: 1) I. 비내구소비재 II. 내구소비재 III. 자본재 IV. 중간재 IV-1. 노동집약중간재 IV-2. 자본집약중간재

재를 수입하여 소비재를 조립가공한 다음 이를 미국에 수출하는 韓·美·日의 연결형 구조였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흑자화의 1988년까지도 변함이 없다. 즉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일본 자본재무역특화지수는 1985년 -0.65에서 1986년에 -0.81을 피크로하여, 1988년에 -0.68로 다소 줄고 있으나 기간중 수입특화가 크게 심화되었다. 이는 열전자관 및 반도체(SITC. 776), 전기장치, 저항기, 인쇄회로 및 부품품(772), 섬유 및 가죽용기계류 및 부품(722)의 대일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다만 자본재중 열전자관 및 반도체(776)와 전력기기 및 부품(771) 등 전기기계장치 및 부품의 대일수출도 연평균 5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일수입이 이를 크게 압도하여 資本財 對日輸入特化가 오히려 強化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집약중간재(IV-1)의 대일수입특화도 1985년 -0.29에서 87년 -0.33으로 중간재 수입은 1986년을 고비로 수입특화지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특화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가 1988년에 -0.16으로 약간 완화되고 있다. 이는 섬유사(651), 인조섬유직물(653)의 대일수입이 크게 늘고 거기에 유리(664), 비금속제품(699)의 수입증가가 가세한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집약중간재(IV-2)의 대일수입특화는 1985년 -0.49에서 1987년 -0.40으로 수입특화정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주로 철강(672)과, 철강봉 및 형강(673), 철강판(674), 철강튜브(678) 등 철강제품의 수입대체와 석회, 시멘트 및 조립건축자재의 수입감소 또는 수출확대에 기인한다. 의류, 신발 등 비내구소비재의 대일수출은 여전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높은 수출특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는 여전히 수입특화상품이긴 하나 그 정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美國에 대하여는 I, II, III, IV 전용도에서 87년까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8년에는 資本財와 中間財가 오히려 소폭적으로 輸入特化로 轉換되고 있다.

〈表 5〉對美國 商品用途別 貿易特化指數 推移

	무역량구성비	1980	1985	1986	1987	1988
I	21.33	0.9713	0.9836	0.9820	0.9775	0.9736
II	27.04	0.7564	0.8066	0.8760	0.8860	0.8897
III	22.08	-0.1708	0.0017	0.0864	0.0933	-0.0265
IV	13.56	0.1692	0.2263	0.1649	0.0651	-0.0579
IV-1	(4.83)	0.5362	0.5257	0.5435	0.4917	0.4136
IV-2	(8.73)	-0.0223	0.0635	-0.0736	-0.1713	-0.2902

註: I. 비내구소비재 II. 내구소비재 III. 자본재 IV. 중간재 IV-1. 노동집약중간재
IV-2. 자본집약중간재

특히 I 과 II 즉, 비내구소비재와 내구소비재의 경우 0.98과 0.89의 높은 수출특화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II)의 경우 1985년에 0.81에서 1986년에 0.88 그리고 1987~88년에 0.89로 계속 수출특화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녹음기·VTR(763), 통신녹음 및 재생기기의 부품(764), 가정용 전기 및 비전기장비(775) 그리고 자동차(781)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통신녹음 및 재생기기부품(764)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여 이 부문의 수입대체가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784)의 수입은 1985년 4,080천달러에서 1987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50,930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미 자본재와 중간재무역특화지수는 1987년까지 수출특화였으나 1988년에는 -0.03과 -0.06으로 수입특화로 전환되고 있다. 중간재의 수입특화전환은 주로 자본집약중간재(IV-2)가 1986년 이후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집약중간재(IV-2)는 1985년 0.06의 수출특화를 나타냈으나 1986년에 -0.07, 1987년에는 -0.17 그리고 1988년에 -0.29로 급격히 수입특화로 반전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대미수출비중이 컸던 철강튜브 및 파이프(678), 철강판(674), 철강봉(673) 등의 철강제품과 고무타이어(625) 등의 수출은 둔화 내지 감소한 반면 탄화수소(511), 카복실산(513), 중합 및 공중합제품(583), 기타 화학제품(598) 등의 화학물 및 관련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흑자전환이후 우리나라 무역구조는 기본적으로 적자시대의 자본재 및 중간재의 대일수입특화와 소비재의 대미수출특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자본재는 대일수입의존이 크게 늘었다. 자본재와 중간재의 경우 1988년에는 그동안의 대미 수출특화가 수입특화로 전환된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그 원인은 철강제품의 수출대체확대에 의하여 대일 자본집약중간재의 수입특화가 개선된 반면, 화학제품의 대미수입이 늘어 자본집약중간재의 對美貿易은

수출특화에서 輸入特化로 反轉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로는 중간재의 무역이 1985년의 수출특화에서 1987년 이후 수입특화로 반전되었다. 이같이 자본재와 중간재는 1985~1988년 간에도 수입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그러나 소비재 특히 내구소비재의 대미수출은 크게 늘어났다. 통신장비, VTR, 자동차 등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내구소비재의 수출특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점이 흑자전환의 요인이다. 즉 흑자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耐久消費財의 수출이 자본재·중간재의 수출확대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Ⅲ. 主要 業種別 工程分業推移

여기서는 우리나라 輸出主宗業種인 衣類, 신발, 自動車, 電子, 工作機械, 合成樹脂 등 6個 業種에 대하여 資本財, 中間財, 完製品에 이르는 産業工程別 貿易特化指數를 살펴본다. 이것은 당해 業種別 生産工程에서 資本財와 中間財를 國産化하고 있는가 혹은 아직도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각 工程別 國別 貿易比重을 살펴봄으로써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느 나라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체로 輸出特化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完製品은 주로 어느 나라에 輸出이 집중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를 1985년 이후 87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變化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衣類産業

우리나라 輸出大宗品目の 하나인 衣類産業의 경우 1986년 이후 國際分業構造 자체에는 그다지 變化가 없고 資本財·中間財 輸入依存과 完製品 輸出依存의 現構造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종 방사, 방적, 합사기, 재봉기, 염색, 손질기계 등 소위 섬유기계의 수입의존은 1980년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다.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衣類産業관련 資本財의 輸入特化指數가 1980년의 -0.70에서 1985년에 -0.72로 더욱 深化되고 1987년에는 -0.80으로 대폭 높아진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들 대부분의 섬유기계는 日本으로부터 輸入되고 있다. 이는 거래액 總額의 59.54%가 日本과의 거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衣類中間財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사의 경우도 日本으로부터 輸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에 0.45의 輸出特化를 나타내고 있던 섬유사의 貿易特化指數가 87년에는 0.04로 크게 낮아져

〈表 6〉衣類産業의 工程間分業變化 (단위 :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자본재 (72430-7246, 7247)			
무역특화지수	-0.6992	-0.7245	-0.7966
거래액비중	14.55	12.15	9.29
(대미)	(3.31)	(3.96)	(3.22)
(대일)	(49.34)	(56.94)	(56.54)
II. 중간재			
1. 원면, 양모 등 (261-268)			
무역특화지수	-0.8398	-0.8104	-0.8060
거래액비중	12.93	11.00	10.65
(대미)	(68.62)	(45.00)	(30.08)
(대일)	(6.82)	(9.21)	(12.17)
2. 섬유사 (651)			
무역특화지수	0.6727	0.4512	0.0409
거래액비중	26.06	25.49	27.31
(대미)	(2.43)	(3.14)	(3.97)
(대일)	(39.94)	(33.16)	(26.95)
3. 면·인조 등 각종직물 (652-656)			
무역특화지수	0.6653	0.6248	0.6166
거래액비중	3.62	3.10	6.02
(대미)	(8.22)	(12.25)	(11.87)
(대일)	(25.68)	(17.01)	(12.95)
III. 완제품 (842-847)			
무역특화지수	0.9920	0.9964	0.9958
거래액비중	42.84	48.27	46.74
(대미)	(35.43)	(49.25)	(40.51)
(대일)	(15.71)	(15.19)	(26.14)
총거래액	5,769(100)	7,635(100)	12,678(100)
(대미)	1,600 (27.74)	2,506 (32.83)	3,244 (25.58)
(대일)	1,232 (21.36)	1,389 (18.20)	2,936 (23.16)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7243-7246, 7247 : 각종 방사, 방적, 합사기, 직기, 편물기 및 보조기계, 재봉기, 직물세탁·표백·염색·손질기계
 261-268 : 전, 면, 황마, 양모 및 합성인조섬유
 652-656 : 면·인조섬유직물, 편직물 등 각종직물
 842-847 : 각종 내의 및 외의직물제 의복부속품

輸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衣類完製品은 계속 +1에 가까운 輸出特化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85年 이후 美國의 輸入規制, 원화가치상승 등에 따라 對美輸出 비중이 50%에서 40%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對日輸出은 엔화강세 등을 반영하여 15% 수준에서 26% 수준

〈表 7〉 신발産業의 工程間分業變化 (단위 :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자본재 (72481, 72482, 72489)			
무역특화지수	-0.9698	-0.9580	-0.8845
거래액비중	2.76	3.70	4.52
(대미)	(6.00)	(5.21)	(11.26)
(대일)	(70.84)	(71.16)	(48.20)
II. 중간재			
1. 천연 고무, 가죽(232, 233, 611)			
무역특화지수	-0.9641	-0.9072	-0.7888
거래액비중	36.16	24.84	23.22
(대미)	(15.00)	(13.09)	(11.34)
(대일)	(40.34)	(37.63)	(25.26)
2. 각종재료, 부품 등(6123)			
무역특화지수	0.8596	0.5556	0.4216
거래액비중	2.37	2.17	2.39
(대미)	(45.72)	(40.77)	(35.60)
(대일)	(30.56)	(23.35)	(25.26)
III. 완제품(851011-92, 851019, 851021, 851022)			
무역특화지수	0.9977	0.9973	0.9977
거래액비중	58.71	69.29	69.88
(대미)	(53.82)	(74.31)	(65.91)
(대일)	(11.14)	(5.24)	(10.51)
총거래액	1,346(100.00)	2,183(100.00)	3,864(100.00)
(대미)	515 (38.27)	1,219 (55.82)	1,934 (50.04)
(대일)	320 (23.81)	387 (17.73)	622 (16.10)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72481, 72482, 72489 : 피혁가공 및 신발제조기계, 고무 및 인조플라스틱 산업용 기계

851011-92, 851019, 851021, 851022 : 고무 및 인조플라스틱 재료의 신발·가죽 및 인조피혁신발

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신발産業

신발産業의 경우도 衣類産業과 마찬가지로 피혁가공 및 신발제조기계 등 해당 資本財의 輸入依存度는 다소 개선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0.88로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선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일부 다변화되고 있다. 즉, 1985년에 7할 이상을 日本으로부터 輸入해오던 이들 기계가 1987년에는 약 5할

〈表 8〉 自動車産業의 工程間分業變化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중간재(674)			
1. 철강의 유니버설 및 판(674)			
무역특화지수	0.5006	0.2338	0.1154
거래액비중	71.61	46.97	25.38
(대미)	(12.64)	(22.20)	(6.27)
(대일)	(43.25)	(51.80)	(59.47)
2. 타이어, 안전유리(6251, 6647)			
무역특화지수	0.9460	0.7092	0.5354
거래액비중	8.70	7.48	4.79
(대미)	(17.58)	(44.73)	(33.97)
(대일)	(3.00)	(2.05)	(5.90)
3. 엔진, 부품 (71321, 78492, 78499, 74932)			
무역특화지수	-0.8686	-0.5086	-0.6024
거래액비중	13.20	14.85	13.14
(대미)	(3.18)	(10.31)	(17.43)
(대일)	(53.30)	(61.70)	(59.61)
4. 샤프 등 (784914-5, 749921, 778312)			
무역특화지수	-0.2204	-0.3824	-0.3003
거래액비중	0.73	1.34	1.82
(대미)	(4.43)	(19.25)	(34.71)
(대일)	(34.47)	(39.35)	(35.18)
II. 완제품(7810)			
무역특화지수	0.7859	0.9376	0.8670
거래액비중	5.37	29.35	54.88
(대미)	(8.24)	(1.53)	(79.22)
(대일)	(2.66)	(1.08)	(6.29)
총거래액	1,034(100.00)	1,824(100.00)	5,365(100.00)
(대미)	119 (11.49)	292 (16.01)	2,796 (52.13)
(대일)	401 (38.80)	629 (34.49)	1,464 (27.30)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71321, 78492, 78499, 74932: 자동차용엔진 등 각종 부품

784914-5, 749921, 778312: 자동차샤프 시각 부품

7810: 승용자동차

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은 같은 기간동안 5%에서 11%로 감절로 늘어났다. 천연고무, 가죽 등 中間財의 輸入依存度도 1987년에 -0.79로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1985년에 비하여 日本으로부터 輸入依存度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종 신탁재료부품의 輸出特化指數는 1985년 0.56에서 1987년 0.42로 줄어들고 있다.

完製品の 신발은 계속 +1에 가까운 輸出特化指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2/3가 對美輸出이다.

3. 自動車産業

國產化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自動車産業의 경우를 보면 철강, 타이어, 안전유리 등 부품은 輸出特化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엔진, 부품, 샤시 등은 輸入特化를 나타내고 있다. 엔진, 부품 등의 輸入特化는 일부 수입대체가 안된 부분도 있으나 自動車産業의 생산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輸出은 제약을 받는 대신 모자라는 부분의 輸入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中間財의 경우 1985년에 비하여 1987년에 輸出特化도 낮아지고 輸入特化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自動車生産規模擴大에 따른 內需增加와 輸入增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完製品の 輸出은 지난 2年 동안 크게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은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美輸出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이 부문이 우리나라 國際收支黑字轉換과 그 확대에 기여했다.

4. 電子産業

가정용 電氣器機를 중심으로 하는 電子産業의 성장은 自動車와 더불어 괄목할 만하다. 이 産業의 貿易去來額은 1980年 28億달러에서 1985년에 48億달러로 다시 1987년에는 135億달러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産業에서도 반도체 등 基礎中間財는 韓國이 반도체 生産 및 輸出國으로 크게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輸入特化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産業에서 總貿易去來額의 37%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基礎中間財의 경우 1980년에 -0.01, 1985년에 +0.003, 1987년에 -0.03으로 약간의 輸入特化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액은 美國과 日本이 비슷한데 日本으로부터는 輸入, 美國으로는 輸出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部品 및 附屬品の 경우는 1985年 -0.07의 輸入特化에서 1987년에는 0.02의 輸出特化로 反轉되어 불과 2年만에 수입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完製品の 경우는 對美輸出擴大에 힘입어 0.71의 높은 輸出特化指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 産業의 完製品輸出特化度 증가와 수출규모확대가 지난 2年동안 國際收支黑字轉換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거래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完製品の 輸出擴大 및 輸出特化度 증가가 去來額比重이 낮은 中間財의 輸入特化度 增加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에 貿易收支 黑字轉換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自動車 등 여타 耐久消費財에서도 같게 나타난다.

〈表 9〉電子產業의 工程間分業變化

(가정용 및 산업용전자기기)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중간재			
1. 기초중간재 등(7761-64, 7768)			
무역특화지수	-0.0082	0.0031	-0.0303
거래액비중	36.38	38.01	36.65
(대미)	(45.49)	(48.85)	(34.66)
(대일)	(26.03)	(23.93)	(33.34)
2. 부품·부속품 등 (7649, 7642, 7591, 7599)			
무역특화지수	-0.1153	-0.0651	0.0223
거래액비중	18.98	15.89	15.75
(대미)	(31.89)	(35.96)	(26.95)
(대일)	(35.71)	(46.81)	(49.54)
II. 완제품(761-763, 751-2, 7641, 7643, 7648)			
무역특화지수	0.4929	0.5330	0.7117
거래액비중	44.19	46.12	47.60
(대미)	(35.78)	(54.31)	(42.61)
(대일)	(19.86)	(12.21)	(10.98)
총거래액	2,838(100.00)	4,827(100.00)	13,482(100.00)
(대미)	1,096 (38.62)	2,941 (60.94)	5,019 (37.23)
(대일)	713 (25.14)	1,322 (27.38)	3,404 (25.25)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7761-64, 7768: 음극선관 및 기타 전자관, 반도체 등 기초중간재

7649, 7642, 7591, 7599: TV, 라디오, 축음기, 레코드, VTR 등의 부품 및 부속품
마이크로폰, 확성기 및 가청주파증폭기, 사무용기기부품
및 부속, 컴퓨터용 부속품 및 부품

761-763: 영상기기 및 음향기기

751: 사무용기기

752: 정보처리기기

7641, 7643, 7648: 통신기기

5. 工作機械産業

위에서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資本財産業의 輸入依存은 工作機械産業의 輸入特化에서 알 수 있다.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절삭, 단조기계공구 등 工作機械는 1980~87년간 輸入特化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深化되고 있다. 즉 工作機械의 貿易特化指數는 1980년에 -0.84에서 85년에 -0.85 그리고 87년에 -0.87로 輸入特化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工作機械를 중심으로하여 일반기계, 산업기계 등의 自主生産能力을 갖추는 일이 後進的 加工貿易性을 탈피하는 요체

〈表 10〉 工作機械産業의 工程間分業變化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중간재			
1. 철강의 봉 등(6732, 6793, 6994)			
무역특화지수	0.7954	0.7336	0.5799
거래액비중	32.94	32.40	21.27
(대미)	(5.28)	(10.45)	(10.26)
(대일)	(8.60)	(12.61)	(31.24)
2. 베어링 등 부품 (7491, 7492, 71621)			
무역특화지수	-0.4602	-0.4335	-0.4062
거래액비중	21.45	33.87	37.08
(대미)	(25.41)	(33.51)	(26.42)
(대일)	(43.26)	(37.16)	(46.07)
3. 금속가공기계 부품 (73691, 73699, 73719, 73729)			
무역특화지수	-0.88827	-0.8409	-0.8109
거래액비중	2.57	2.88	4.96
(대미)	(3.33)	(10.24)	(6.71)
(대일)	(81.07)	(64.86)	(53.20)
II. 완제품(7361-62, 7367, 689, 73711, 73721)			
무역특화지수	-0.8438	-0.8479	-0.8727
거래액비중	43.04	30.85	36.69
(대미)	(9.52)	(7.38)	(13.20)
(대일)	(76.38)	(74.86)	(60.35)
총거래액	846(100.00)	1,041(100.00)	1,692(100.00)
(대미)	96 (11.37)	180 (17.31)	290 (17.16)
(대일)	40 (47.07)	434 (41.63)	821 (48.51)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6732, 6793, 6994: 철강의 봉, 철강단조물 및 압연물, 철강주물

7491, 7492, 71621: 베어링, 벨브, 제어모터 등 부품

73691, 73699, 73719, 73729: 금속가공기계용 부품

7361, 7362, 7367, 73689, 73711, 73721: 금속절삭, 단조기계공구 등 동작기계

임에도 불구하고 黑字轉換 이후 아직까지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工作機械의 輸入과 더불어 그에 따른 베어링 및 金屬加工機械部品の 輸入依存度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초소재가 되는 철강의 경우는 수입 대체를 이루어 輸出特化를 실현하고 있다.

〈表 11〉合成樹脂産業의 工程間分業變化 (단위: 백만달러, %)

	1980	1985	1987
I. 중간재			
1. 나프타·탄화수소용제 등(33419)			
무역특화지수	-1.00	-0.02830	-0.1325
거래액비중	11.44	43.49	29.68
(대미)	(24.42)	(5.16)	(0.49)
(대일)	(1.83)	(46.21)	(44.04)
2. 합성수지재료 등 (51111-3, 51119, 51131)			
무역특화지수	-0.7743	-0.8936	-0.9905
거래액비중	28.26	17.97	27.20
(대미)	(24.55)	(34.36)	(19.25)
(대일)	(64.93)	(24.12)	(40.29)
II. 완제품(5831)			
무역특화지수	0.1287	0.2292	-0.0355
거래액비중	60.30	38.54	43.12
(대미)	(21.09)	(18.86)	(24.93)
(대일)	(17.88)	(27.73)	(22.55)
총거래액	310(100.00)	748(100.00)	1,136(100.00)
(대미)	70 (22.44)	117 (15.69)	183 (16.13)
(대일)	91 (29.34)	263 (35.12)	498 (43.80)

註: 1) ()안의 숫자는 개정한국표준무역분류(SKTC)의 분류번호임

2) 33419: 프로필렌, 테트라마, 나프타 탄화수소용제 등

51111-3, 51119, 51131: 에틸렌, 프로필렌, 브라디엔, 기타 비화식탄화수소 등 합성수지생산에 필요한 기초유분

5831: LDPE, HOPE, PP, PS 등 합성수지

6. 合成樹脂産業

化學産業分野도 韓國産業發展水準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부문이다. 그중에서 合成樹脂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合成樹脂를 完製品으로 보았을 때 이의 貿易特化指數는 1985년의 輸出特化에서 1987년에는 輸入特化로 反轉되고 있다. 즉 1985년의 0.23에서 1987년에는 -0.04로 轉換된 것이다. 이것은 合成樹脂의 內需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合成樹脂의 中間財인 에틸렌, 프로필렌, 브라디엔, 기타 비화식탄화수소 등 合成樹脂生産에 필요한 기초유분은 거의 輸出되지 못하고 日本과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나프타·탄화수소용제 등도 國內生産의 부족으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Ⅳ. 加工貿易後進經濟의 問題點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6年 경상수지 黑字轉換 이후 적어도 1987년까지는 韓國貿易構造가 資本財와 中間財를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後進的 加工貿易構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構造下에서도 消費財의 高附加價值化를 통하여 貿易收支面에서 黑字를 시현할 수 있다. 즉 耐久消費財의 輸出比重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消費財와 中間財가 싼값으로 安定供給이 보장되면 黑字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貿易構造를 갖는 經濟가 안고 있는 問題點도 적지 않다.

첫째, 國內市場의 높은 獨寡占化를 면하기 어렵다. 量產加工・組立型産業은 自動車・電子産業 등에서 전형적으로 모두가 規模의 經濟로 높은 寡占度를 갖는다. 반면에 部品産業, 中間財生産業體들은 종업원 300名 이하의 中小企業이 많은 競爭的 産業이다. 1985年 현재 우리나라 機械, 自動車, 電子 등의 部品産業은 300名 미만의 中小型 종업원을 갖는 業體가 95.6%나 된다.⁶⁾ 특히 그 중 100名 미만의 業體가 86.1%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部品・中間財 및 機械를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韓國의 産業은 競爭度를 높이는 中小企業의 발달이 저해되는 반면 規模의 經濟를 갖는 소수의 大規模企業이 盛하는 높은 市場集中率을 갖게 된다. 특히 이들 加工・組立産業이 外換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輸出依存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市場集中率은 그렇지 않은 經濟에 비하여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둘째, 加工貿易後進經濟는 內需의 擴大를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經濟하에서 活動하는 加工貿易寡占企業의 國內市場均衡生産量 즉 內需의 生産량은 內需만 하는 獨寡占企業의 均형生産량보다 적거나 같다. 또한 加工貿易獨寡占企業은 세계시장가격 上昇, 油價下落 등과 같이 輸出增加를 촉진하는 여건이 變化할 때 總生産량은 增加하지만 內需市場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을 가진다.⁷⁾ 이는 海外市場價格의 상승 또는 中間財價格下落 등으로 輸出利潤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輸出은 擴大됨에도 불구하고 國內需要는 國內價格上昇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째, 國際分業面에서 볼때 技術從屬의 우려가 있다. 製品의 生産을 위한 설계, 디자인과 高級技術을 要하는 核心産業工程을 外國技術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록 金額比重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技術的으로 統制와 制約을 면하기 어렵다. 대표적

6) 産業研究院(1988, p.73).

7) 姜哲圭(1987, pp.107-116).

電子製品인 半導體나 VTR의 경우에도 반도체설계나 수개의 핵심부품을 日本에 의존하고 있어 日本의 의지여하에 따라 韓國 VTR輸出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現實이다.

네째, 消費財輸出을 특히 美國이라는 單一市場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강한 貿易摩擦을 유발시키고 있다. 資本財와 中間財를 輸入에 의존하는 後進的 加工貿易型은 完製品의 과다한 輸出依存을 불가피하게 하며 그 결과 輸出國과의 貿易摩擦이 필연적이다. 특히 韓國은 資本財와 中間財를 日本에 依存하기 때문에 日本을 대리해서 對美貿易摩擦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問題點 이외에도 後發國의 추격도 빠르다. 加工貿易後進經濟를 지탱해 주는 힘은 技術도 아니고, 資本도 아니며, 天然資源도 아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賃金에 비하여 良質인 풍부한 勞動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보다 훨씬 낮은 賃金으로 加工・組立技術을 익히고 있는 經濟는 ASEAN諸國과 中國 등에서 發見된다. 이러한 後發國의 추격은 韓國經濟의 加工貿易性의 탈피를 강력하게 要求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것은 韓國貿易構造가 지향해야할 課題가 技術革新을 통한 資本財・中間財의 輸入代替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附 錄〉

〈附表 1〉 工產品의 用途別 貿易商品分類(SITC 세자리숫자 기준)

區 分		SITC 分 類 番 號
非耐久消費財(Ⅰ) (18個品目)		553, 572, 656, 658, 659, 83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51, 883, 892, 895, 899.
耐久消費財(Ⅱ) (21個品目)		666, 696, 697, 761, 762, 763, 764, 775, 781, 782, 783, 784, 785, 812, 821, 885, 893, 894, 896, 897, 898.
資 本 財(Ⅲ) (41個品目)		695, 711, 712, 713, 714, 716,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36, 737, 741, 742, 743, 744, 745, 749, 751, 752, 759, 771, 772, 773, 774, 776, 778, 786, 791, 792, 793, 871, 872, 873, 874, 881, 884.
中間財(Ⅳ) (71個品目)	勞動集約中間財 (Ⅳ-1)(22個品目)	611, 612, 613, 633, 634, 635, 651, 652, 653, 654, 655, 657, 662, 663, 664, 665, 667, 691, 692, 693, 694, 699.
	資本集約中間財 (Ⅳ-2)(49個品目)	335, 511, 512, 513, 514, 515, 516, 522, 523, 524, 531, 532, 533, 541, 551, 554, 562, 582, 583, 584, 585, 591, 592, 598, 621, 625, 628, 641, 642, 661,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882.

註：1) 分類는 日本通産省, 『通商白書』, 1986, pp.405-406 참조.

日本通産省 分類는 SITC Rev. 1을 따른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시 SITC Rev. 2를 따라 재분류한 것임.

參 考 文 獻

1. 姜哲圭, “加工貿易獨占企業의 內需效果”, 『經濟學研究』, 제36집, 韓國經濟學會, 1987, pp.107-116.
2. 姜哲圭・張錫仁, 『加工貿易과 産業組織』, 産業研究員, 1987.
3. 産業研究院, 『韓國의 部品産業』, 1988.
4. 日本通産省, 『通商白書』, 1986, pp.405-406.
5. Grubel, H.G., and P.J. Lloyd, *Intra-Industry Trade*, The Macmillan Press Ltd., 1975.